

시대분별_Timing IX.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지혜라는 눈이 떠져야 할 때

1. 시즌과 지혜

[다니엘 2: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서를 보라.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왕도 시간을 주관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왕 위에 계신다. 세상의 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다. 이런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이 '지혜와 총명'이며, 이것은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시간의 주관자이시다. 시간은 인간이 만질 수 없는 불가영역이다.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이시고, 마지막 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시간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 보이지 않았던 영역, 이해가 되지 않았던 영역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어지게 되며 그 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 '지혜'가 열리는 것이다.

지혜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유'가 있다. 지혜는 하나의 퍼즐 조각을 넘어서 퍼즐 전체를 보는 눈이다, 지식이 퍼즐 하나라면, 지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진 퍼즐 전체이다. 그래서 지식이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지혜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숙성'된다. 그냥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연단이 주는 선물이 지혜이다. 그래서 지혜는 실제적으로 이 땅의 해결이 된다,

지혜는 보이지 않았던 막혀있는 상황의 시공간을 열어 버린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보이지 않았던 영역이 보이고 열리지 않았던 영역의 문이 열린다. 지혜는 영의 속성에 속해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과거가 해석이 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과거와 미래를 보는 지혜가 현실에 적용될 때 '분별'로 임하게 된다.

분별은 현재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 내는 강력한 능력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속이는 자 머리 위에 있다. 성경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자를 신령한 자라 말한다.

[고린도전서 2:6-10]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 6절 -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이 지혜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을 알 수 있다. 세상의 지혜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가 아니다. (영의 속성)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있는 지혜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 위에 있는 지혜라는 것이다.

* 7-8절 -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도 알 수 없는 지혜이다. 감추어졌던 것이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말한다. 그에대한 단서는 고린도전서 2:1-2에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2:1-2]

- 1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 2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 십자가와 지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의 신령한 자를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하여 선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기록한다. 바울은 하늘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만약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8절). 이 말은 하늘의 지혜의 속성에 대하여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지혜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도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을 언급한다(14절).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사람은 신령한 자(15절)로 대비시킨다. 육에 속한 사람은 썩어 없어질 사람의 지혜를 가진 자이고, 신령한 자는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지혜를 가진 자이다.

육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육의 속성을 따른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다. 자기 능력만큼만 알 수 있다 (정보, 리서치, 지식보유 등).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영의 속성을 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는 내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답답한 것이다. 자기 능력만큼만 알기에 그보다 강한 외부적 상황이 오면 향방을 잃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한계'가 없다. 다른 차원안에서 (영적인 차원) 이 땅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영역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보여지는 겉모습,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으로 나타난 문제의 본질, 뿌리를 보게 한다. 보이지 않던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식은 보여지는 면을 분석한다면, 지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게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이다. 옛 자아가 죽는 것이다. 죄로 타락한 옛 자아가 죽고 구원받아, 재창조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아담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즉,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지혜 자체 보다는, 지혜를 담을 그릇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권세와 능력 자체보다, 권세와 능력을 담을 그릇이 중요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연합한, 새 생명을 입은 우리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이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자를 말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강조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속성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임하는 것이다. 알게 되는 것이다. 한 번에 다운로드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이다. 연합은 다른 둘이 '동기화'가 된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의 모든 것이 동기화 되는 것이다. 그 때부터 이 사람에게 있는 땅의 능력은, 그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의 능력이 영적인 차원에서 다스려지고 있기때문에,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르게 된다.

3. 하나님의 계절을 아는 지혜

지혜로운 통치자 다니엘을 보라. 다니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았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절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몇 명의 왕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고 통치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다니엘 2:21의 내용처럼 총명과 지혜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총명과 지혜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하나님의 계절과 시간에 맞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언급한 하나님의 계절이 마가복음 13장의 무화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 13:28-29] 2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29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16: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계절과 시간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당부하신다. “깨어 있으라” 바로 이 태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요구되는 영성이다. 마태복음 16:3에도 아침에 하늘의 상태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며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절과 시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열심이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속에서 움직여지는 열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가장 큰 걸림돌은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다. 하나님의 계절과 다른 자신의 계절을 산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시간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름에 겨울옷을,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이다.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반응하지 않는 열심과 노력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절을 아는 것이다. 지금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하는 계절인지, 아니면 추수해야 할 계절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집중된 개인 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4. 튜닝하는 노력

하나님의 계절을 아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시간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의 승리 위에서 처단되어야 한다. 십자가 복음을 내면에 더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그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공간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계절에 있는지 알게 된다. 그 눈으로 시대를 읽을 줄 알게 된다. 그 눈으로 시대를 분별해서 내 좌표를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항방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이 시간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튜닝하는 자세이다.

1)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지 말라.

: 하나님의 시간을 질문하라. 그리고 그에 맞는 시간을 살겠다고 고백하라. 순응해야 한다.

2) 실제적인 이 시대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나, 내 교회를 넘어서 열방의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세계정세의 흐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 시대 분별의 지혜를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있을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게 하신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 교회를 준비하시고, 제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의 성전을 위해 다윗을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기근을 위해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예언적이다.

아가보를 통한 예언 그리고 재정의 준비를 기억하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며,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준비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에 맞는 옷을 입자.